

# 알제리의 다중 언어사용과 프랑스어 위상에 관한 고찰

임기대  
(한남대학교)

Lim, Gi-dae. (2012). Multi-linguals and the status of French in Algeria.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5*, 178-199.

The issue of languages used in Algeria has been addressed by the government through Arabization and is therefore marked by nationalism. The struggle for linguistic independence vis-à-vis French is still ongoing. In addition, the Berber language isn't officially recognized. However, recen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have affected the country with the opening of the free market economy and the changes in political landscape and culture. As a result, there has been the emergence of a more objective and pragmatic approach to the question regarding the many different languages spoken in the country. Such changes can be seen, somehow, as the product of the history of Algeria, fueled by large socio-cultural influences that have marked the Mediterranean and the French presence. Here, the Berber language is as important as French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culture and mentality of Algeria. In fact, the Algerian government is now working hard to better take into account all the different parameters (political, social, educational, economic and historical) for new language policies. All these movements taking place, in turn, are bound to influence adherence to the Francophonie.

**Key Words:** multi-linguals, French, Berber, Arabization, Francophonie, Algeria

## I. 들어가는 말

알제리는 프랑코포니(OIF)<sup>1</sup>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프랑스 다음으로 프랑스어 사용 인구<sup>2</sup>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아랍어라는 모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프랑스어 화자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게다가 프랑스어 사용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 지역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나 연구는 왜 그 동안 별로 없었을까? 일차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학자들의 무관심이 있겠지만, 정치사회적 현황과 문화적

---

<sup>1</sup>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어권 국제기구(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로 불리며, 현재 57개국의 회원국과 20개의 참관국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어의 위상과 보급을 위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sup>2</sup> 알제리 전체 인구(3,400만 명, 2011 기준) 중 대략 2,500만 명 이상의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있다. 이는 790만 명의 인구 중 80%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퀘벡지역보다 3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배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언어학적 방식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sup>3</sup>

알제리에서 다중 언어사용과 프랑스어의 위상을 살펴보는 일은 이 지역이 로마시대부터 유럽과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는 사실, 아랍이슬람화 과정, 오스만 터키와 프랑스의 식민지배, 독립 후 탈식민화 정책의 성과, 현대 들어 다문화/언어 정책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정책들, 그리고 여러 사건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언표들의 배치를 계열화시켜 볼 때서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여러 언어들의 현황, 그리고 지역과 계층, 성별, 교육 수준, 세대 등의 차이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알제리에서의 프랑스어 위상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고, OIF와의 관계까지도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몇몇 유럽 국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알제리의 다중언어사용을 살펴보면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언어들의 사용에 관한 정치사회적 이유와 그에 따라 시공간을 통해 집적된 혼용 상황을 고려하여 언어간의 몇몇 차용 사례 또한 살펴볼 것이다. 그런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곳에서의 향후 프랑스어 사용 가능성과 OIF와의 관계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II. 3개 언어의 병용

알제리에서의 프랑스어의 위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대립적 혹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베르베르어와 아랍어의 사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슬람 국가이기에 아랍어를 사용하고, 독립 이후에 추진된 강력한 아랍어 정책에 따라 아랍어 사용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실제 알제리에서 언어 사용의 실체를 부인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outes les mesures linguistiques prises par le régime algérien au lendemain de l'indépendance expriment un déni de la réalité langagière algérienne.<sup>4</sup>

(독립 직후 알제리 체제가 취한 모든 언어학적 방책은 알제리인의

<sup>3</sup> 실제로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알제리에서의 언어사용에 관한 언어학적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적어도 3개 언어가 이 지역에서 사용되고, 그런 언어들의 체계적인 특성을 알고 있어야 객관적인 언어학적 층위의 비교(형태, 통사, 음운, 의미적 층위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알제리가 갖고 있는 여러 특수성(사회문화적)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sup>4</sup> Taleb Ibrahim, K. (2012, July 12). Y a-t-il encore une question de langues en Algérie. *Colloque International par El Watan*.

언어에 대한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베르베르어와 아랍어 사용은 알제리 정부나 식민 프랑스정부에 의한 아랍어 정책과 프랑스어 정책에 따라 실시된 것을 각각 이해할 때 그 사용과 위상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다.

## 1. ‘베르베르어’를 통해서 본 언어사용의 변천과 배경

알제리 사회는 물론, 알제리에서 다중 언어사용과 프랑스어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토착어인 베르베르어의 위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어 사용 문제는 정치는 물론, 사회, 경제, 교육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르베르어는 알제리의 토착민인 베르베르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아랍 정복 혹은 프랑스 식민지배 이전부터 사용해왔던 언어이다.<sup>5</sup>

알제리의 토착민인 베르베르인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이며 동질적인 지리적 통일을 이룬 적이 없었다. 광대한 아프리카 영토에 흩어져 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였기 때문에 사용지역별로 수천에서 수십, 수백만 명의 베르베르어 화자들이 살고 있다. 로마시대부터 비교적 잘 유지되어 온 베르베르어 전통은 베르베르인들의 이슬람화<sup>6</sup>, 지역별 차별정책, 특히 교육기관에서 아랍어 의무정책으로 자신들의 언어사용에 제한을 받았다. 조직적이지 못한 베르베르인들이 아랍에 정복당하면서, 이 지역에서 아랍어는 권력의 언어이자 종교 언어인 동시에, 글쓰기 및 형식화된 지식의 언어이자 도시 언어가 된 것이다. 행정 관료나 권력의 위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랍어 습득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중동의 아랍이슬람이 유대 및 기독교에 저항하는 문명권이라 생각하고, 아랍어는 이들 언어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었기에 피정복민인 베르베르인은 행정이나 사법, 교육에서 아랍어로 사용할 것을 강요 받거나 자발적으로 사용하였다.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 중심 단위가 곧

<sup>5</sup> 북아프리카에서 베르베르어 화자는 모로코가 전체 인구의 40-45%, 알제리가 20-25% 정도를 차지하여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베르베르어 사용권은 인구통계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적어도 알제리와 모로코에서 베르베르어가 소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소수어인 베르베르어 문제가 정치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모로코의 경우도 중동의 민주화 바람으로 매우 민감한 국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2011년 7월 헌법에 의해 베르베르어를 국가어로 인정하였다.

<sup>6</sup> 알제리의 종족 현황에 대한 소개는 대개 아랍인들이 절대 다수이고, 베르베르족들이 소수인 것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의 다수 민족은 이슬람화된 베르베르족들이지 중동지역의 아랍인들이 아니다.

국가체계였던 북아프리카에서 베르베르어는 문자 혹은 문법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여 아랍어에 의해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 아랍 정복 후부터 16세기 초 오스만터키 침략까지 베르베르어는 알제리 서부와 튀니지 국경 쪽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오늘날 알제리의 광대한 영토에서 '섬'처럼 존속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사막의 투아레그(Touareg), 동북부 지중해와 산악지대에 걸쳐 있는 카빌리의 카빌(Kabyle), 카빌리를 지나 고평원지대에서 사막 이전까지에 걸쳐 있는 오레스지역의 샤우이(Chaouis), 고평원을 지나 모래사막이 펼쳐지기 전까지에 있는 음자브의 모자비트(Mozabite)가 현재는 대표적인 베르베르어 사용자들이다.<sup>7</sup>

어쨌든 베르베르인들이 아랍이슬람을 수용했지만 소수가 되어 버린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베르베르어권 지역이 반아랍적 성향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식민지배 때부터이다.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어/문화는 식민통치를 위한 프랑스인들의 주 관심사였다. 대부분의 제국주의 정책이 그랬듯이, 프랑스 식민당국은 아랍이슬람과 토착민을 분열시키기 위해 베르베르어를 공식교육기관에서 교육하면서 베르베르어 사용자들이 프랑스어를 쉽게 접하도록 했다.<sup>8</sup> 아랍어는 식민지배 초창기와 이슬람 종교학교인 '메데르사(Medersas)'를 제외하곤 아랍어 교육이 금지되었다. 알제리가 프랑스의 도(道)로 확정한 1880년대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베르베르어의 등장은 오히려 프랑스어의 위상을 강화시켰고, 프랑스어는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가 된 것이다. 베르베르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웠고, 아랍인들도 일하거나 글을 쓰기 위해 혹은 행정업무를 익히거나 배우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워야 했다. 반아랍적 정서가 강한 카빌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프랑스어를 배우고 프랑스문화 또한 수용했다.

132년이라는 프랑스 식민지배는 아랍어로 단일체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줬으며, 독립투쟁가들은 이를 통해 민족주의 정신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갔다. 식민지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민족 혹은 아랍어라는 단일 체제를 이루어온 알제리인들이 프랑스와의 저항을 통해 민족주의라는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낸 것이다. 민족주의 근저에는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는 모어 화자들의 이슬람 공동체, 즉 아랍이슬람 국가를

<sup>7</sup> 물론, 이들 지역이 베르베르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모두 동일한 베르베르어가 아니다. 4개의 지역은 각각 다른 베르베르어 방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하는가의 정도,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언어사용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의사소통은 큰 범주에서는 별 무리가 없다. 오늘날에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베르베르 문자 체계 '티피나그(tifinagh)'를 사용하고 있다.

<sup>8</sup> 최초의 베르베르어 문법서가 1893년 프랑스인과의 소통을 위해 아노토(Hanoteau)장군에 의해 발간되기도 했다. 물론 프랑스어/베르베르어 사전은 그 이전에 이미 발간되었다.

형성해가는 것과 언어문화적으로 통일되고 중앙집권화된 국민국가라는 프랑스적 모델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족 중심주의의 민족주의는 외부 세력은 물론, 내부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요소에 대해 배타적으로 작동하였다. 단일어의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주의는 프랑스 배제와 독립을 위한 저항논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토착어인 베르베르어와 같은 소수 언어는 무시하거나 지배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었다. 실제 이런 과정이 내부에서도 노골적으로 보임에 따라 독립투쟁 과정에서 베르베르인들은 반감을 갖게 된다.

이런 와중에 처음으로 민족주의 운동 세력 PPA<sup>9</sup>, MTLD<sup>10</sup>, FLN<sup>11</sup> 등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다. 알제리를 아랍이슬람 국가로만 규정하는 세력과 북아프리카 토착민의 역사와 그 전통에 기반하여 국가 단위 이상의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이다.<sup>12</sup> 베르베르 출신 젊은 운동가들도 반 아랍어화, 반이슬람화된 알제리, 즉 베르베르의 정체성 및 베르베르어 사용자로서의 소속감을 요구하고 결집시켜 나갔다. 이들은 알제리를 언급할 때, 아랍과 결부된 어떤 것도 거부하면서 표기 자체도 아랍어로는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반아랍어를 채택한 베르베르 민족주의자들이 프랑스어와 자신들의 언어인 베르베르어를 사용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특히 카빌리가 그러했고, 인접해 있는 오레스의 경우는 반대로 아랍화에 의한 투쟁을 더 강력하게 주장했기에 베르베르 내부에서도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sup>14</sup>

알제리 민족주의 세력은 아랍어만이 알제리의 국어이자 민족어라고 주장하였다. 독립 후부터 1989년까지 알제리의 공식 문헌 어떤 곳에도

<sup>9</sup> Parti du Peuple Algérien(알제리 민중당)의 약자로 1937년 파리에서 창설되었다.

<sup>10</sup> Mouvement pour le Triomphe des Libertés Démocratiques(민주 자유 승리를 위한 운동)의 약자로서 PPA가 그 전신이다.

<sup>11</sup>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민족해방전선)의 약자로서 현재까지 알제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당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sup>12</sup> 여러 독립 운동가들 중 메살리 하즈(Messali Hadj, 1898-1974)는 독립 조건으로 단일 국가가 아닌 강력한 마그레브를 포괄할 수 있는 국가 건립을 주장하여,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배척당하였다.

<sup>13</sup> 이때부터 베르베르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 예술가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들의 전통은 <젊은 알제리인(Jeune Algérien)>의 태동과 맞물린다. 1912년 창설된 이 단체에는 주로 알제리 문인, 지식인과 여성 지식인들이 많다. 이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독립 운동을 펼치면서도 폭력적이 아닌 인권적인 차원에서 프랑스 본국 프랑스인들과 알제리인들 간의 동등한 인권과 평등을 요구하였다. 주로 프랑스어로 교육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견해를 프랑스어로 표현하였으며, 알제리 문화를 프랑스어로 담아내려는 여성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다.

<sup>14</sup> 오레스지역은 알제리에서도 가장 먼저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는데, 이들이 재빠르게 개종한 이유는 아랍의 강압도 있었겠지만 로마의 착취와 아랍이 내건 평등주의와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연유로 베르베르일파인 오레스 지역은 알제리 내에서 가장 먼저 아랍화를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아랍어 및 아랍식의 관행들을 수용하고 있다(Bourdieu, 1961, p. 25).

‘베르베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알제리의 아랍이슬람 정책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알 수 있다. 프랑스어를 배제하기 위해 토착어인 베르베르어까지 무시한 정책은 베르베르인들을 자극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친프랑스어, 반아랍어 성향을 갖게 만들었다. 흔히 말하는 “베르베르의 봄(printemps de Berbère)”이 대표적인데, 이것은 언어 문화적으로 베르베르인들이 아랍화정책에 맞서 싸운 운동으로 지금까지 알제리인들의 정신 속에 각인되어 문화적 독자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의 정치문화 운동, 그리고 정치권력에 맞서 공식어의 지위를 확보해나가는데 기여했던 과정들은 알제리가 중동의 이슬람국가들과는 다른 문화적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 전부터 이들이 '아랍'이라는 중심 권력에 맞서 투쟁해 온 몇몇 역사를 연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1948 PPA-MTLD 내부에서 아랍이슬람적 가치에 따라 모든 것이 판단 결정되고 베르베르주의는 배제되기 시작함
- 1964 알제 헌장 III/1장 25조에서 “알제리 민족의 아랍이슬람적 본질은 식민주의의 파괴에 맞서 견고한 방어벽을 구성했다.” 아랍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함
- 1965 부메디엔이 주도한 군부쿠데타를 통해 구성된 혁명위원회는 아랍이슬람적 가치야말로 근대 국가 알제리를 확립하는데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함
- 1976 민족헌장 전문에서 “알제리 민족은 아랍민족공동체에 결부되어 있고, 이슬람교와 아랍 문화는 보편적이면서 민족적인 틀이다”라고 강조
- 1976 1976년 헌법 제 3조에서 “아랍어는 국민언어이며 공용어이다. 정부는 공적 분야에서 국민어 사용을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함
- 1984 알제리는 아랍이슬람 국가이며, 이슬람의 ‘샤리아(Charia)’에 근거한 국가 건설을 원칙으로 한다는 가족법<sup>15</sup>을 개정
- 1986 개정된 민족헌장 제 109조에서 “이슬람교의 출현은 하나의 총체적인 혁명이었는데, 방식은 인간적이었고 원칙은 보편적이었으며 표현은 아랍적이었다. 알제리 민족은 아랍 민족이며 이슬람 민족이다”라고 천명함
- 1989 베르베리즘이 본격적으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 3조에서 “아랍어는 국민어이자 공용어이다”라고 밝힘
- 1994 제루알(Zeroual) 대통령 “우리 모두는 아마지그인이다”라고 천명함
- 1995 대통령 직속기관 <아마지그테 고등위원회> 창립과 타마지그트어의 점진적 교육 실시

<sup>15</sup> 아랍 이슬람정책을 위해 이때 개정된 가족법은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저하, 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 등과 관련한 차별이 많다고 하여 재개정이 거세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알제리의 가족법은 세계화라는 흐름과 이슬람이라는 전통 법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2002 카빌리 지역 위원회와 정부 간 첫 번째 협상 시작. 헌법에서 국가어로 타마지그트어를 인정하게 됨
- 2006 베르베르어 대학수능시험에 포함. 11개 윌라야(wilaya, 道)에서 선택적 실시
- 2007 국회 예산법 통과 연설에서 현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알제리는 동양과 서양에 속하지 않고 알제리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고유 가치와 문화가 우선시되는 사회 건설을 추구한다”라고 천명함
- 2008 헌법 제 1장 3조에서 “타마지그트어 또한 국가언어이다. 국가는 알제리 영토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함. 이외에도 알제리가 이슬람국가이며 마그레브, 아프리카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역사에서 지중해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언급
- 2009 타마지그트 TV 채널 개국
- 2010 1998년 <베르베르의 봄>을 유발했던 루네스 마투브의 암살자들 10명 가운데 2명에 대하여 12년 형 언도

이렇듯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어 사용은 끊임없는 정치적 쟁점 요소이며, 향후에도 프랑스어의 사용이나 위상, 아랍어 정책 등과 관련하여 주목해볼 부분이다. 수적으로 소수이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다수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La question du statut de tamazight, actuellement en débat, soulève d'autres aspects. Son officialisation est reçue par la société algérienne comme étant fondamentalement un enjeu politique

(오늘날 논쟁이 되고 있는 타마지그트어의 위상 문제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언어의 공인은 알제리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쟁점으로 받아들여졌다[Sebba, 2002, p. 89].)

## 2. 프랑스어와 아랍어 정책

알제리에서 프랑스어 사용은 프랑스의 식민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sup>16</sup> 프랑스의 식민지배 방식은 아랍어 대신 베르베르어를 보호함으로써,

<sup>16</sup> 물론 식민지배 이전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 지역에서 프랑스어의 흔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오노 나나미(2009)에 의하면, 중세부터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배 이전까지 알제리 해안가, 즉 지중해에서는 이미 *Lingua franca*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언어는 프랑스어(특히 프로방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이 혼용되어 무역이나 노예거래 등을 할 때 상호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주로 구어체로 통용되었기에 현재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토착민들에게 반아랍이슬람 정서를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프랑스가 알제리를 프랑스의 한 도(道)로 간주한 이후에는 프랑스어는 모든 관공서나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다. 베르베르어를 사용하는 카빌리에서 프랑스어 교육은 특히 강화되었는데, 카빌리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지역이 반아랍적 기질을 갖고 있으면서, 지중해적 기질과 그들의 표현대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려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17</sup>

프랑스의 언어정책은 1870년 이전까지는 토착 언어에 대한 완전한 동화를 이루는 언어정책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 3공화정이 들어서면서 프랑스는 알제리에 대한 동화정책을 다방면으로 추구한다.

La Troisième République confirma officiellement et sans ambiguïté la volonté de reprendre plus efficacement la voie de l'assimilation.

(제 3공화국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더 효과적인 동화정책 노선을 다시 취할 의도를 확인해주었다[Risler, 2004, p. 75].)

문화적인 면에서 단순한 의사전달, 더 나아가 알제리인 엘리트 양성, 이외에도 프랑스는 프랑스문화로의 동화까지 요구한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이 아니라 생각의 수단이기도 하다.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언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생각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며, 프랑스적 가치관을 갖게 된다. 특히 프랑스인들은 고등교육 기관이나 선교 기관을 통해 프랑스문화의 우월성을 전파하고 프랑스적 가치를 전파시켰다. 프랑스의 동화정책은 카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어 작가나 문학가 세대를 배출하였지만, 독립 투쟁을 하는 세력까지 지식층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듯 일부 엘리트층과 카빌리를 위주로 프랑스어 교육이 진행되었지만, 이들은 알제리 사회에서는 수적으로 소수였고, 이후 아랍이슬람주의 세력에 의해 배척당하였다.

식민지배가 프랑스의 ‘해외 영토(DOM)’가 되는 1880년대부터 대다수의 알제리인들은 자녀들을 프랑스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식민정부가 알제리인들에게 종교적 개종까지도 강요했기 때문이다.<sup>18</sup> 종교적 개종으로

<sup>17</sup> 베르베르인들은 다른 정복자들에 의해 타자화 된 이름으로가 아닌 스스로를 명명하는 언표를 갖고 있다. 그것은 ‘아마지겐(Imazighen: 단수형은 ‘아마지그[Amazigh]’이다)’으로 불리는 언표이다. 이 말의 어원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유로운 사람, 고귀한 사람>이라는 말로 통용되는데, 이는 베르베르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sup>18</sup> 이 시기는 알제리가 프랑스에 통합되어 3개의 주(알제, 오랑, 콩스탕틴)로 나뉜 시점으로, 프랑스



인해 학업을 거부한 알제리인들의 취학률은 프랑스에게 정복당하기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 1890년대 들어서 전체 알제리 어린이의 3% 정도, 조금 늘었다고 하는 1914년에도 5% 정도만이 취학을 할 정도였다. 가장 취학률이 낮은 지역이 베르베르지역 오레스(Aurès)<sup>19</sup>로 카빌리와 대조를 이룬다. 이들 지역민들을 비롯하여 프랑스식 교육을 거부한 일부 상류층 자녀들은 중동으로 학업을 떠나, 이슬람 정신으로 무장하여 이슬람 민족주의 운동을 격렬하게 펼쳤다. 현재도 이 지역에 독립운동의 성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우연히 아니며, 독립 이후 근대 국가 형성을 통해서도 이 지역 출신자들이 가장 많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참여했다.<sup>20</sup>

독립 후 정권을 장악한 이들은 탈식민화 정책을 통해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탈식민화 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sup>21</sup>

▸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행정체계 강화: 새 정부는 프랑스식 행정 체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의 행정체계를 만들면서 피폐화된 지방 경제를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 제 1차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해갈 수 있도록 했다.

▸ 교육체계의 정비: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알제리인들의 정체성이 가장 황폐화되었다고 생각한 새 정부는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알제리인들의 이슬람적 가치를 되찾아주고자 교육개혁 정책을 강행했다. 독립과 동시에 상승한 국민들의 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해 알제리정부는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개혁을 중점적으로 단행했다. 문제는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교육과 문화에 익숙한 교육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아랍식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혹은 교육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등과 타 지역 이슬람 학자들을 대거 수입했다. 이들은 고전아랍어로 알제리 젊은이들을 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이 알제리의 방언아랍어와 프랑스어 문장구조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쉬운 일이

---

의 해외영토(DOM)가 된다. 모든 종교적 관행과 언어는 본토 프랑스와 같을 때어야 동등한 시민으로 남을 수 있었다.

<sup>19</sup> 알제리의 베르베르지역은 크게 카빌리, 오레스, 음자브, 사하라로 나뉜다. 이중 카빌리에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이 오레스인데, 이 지역은 로마시대부터 지중해 유럽과 많은 교류를 했지만, 유럽인들의 억압과 탄압으로 아랍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종교적 개종을 한 지역이다. 알제리에서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가장 강한 지역이기도 한데, 프랑스는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보다 같은 인접 카빌리와 차별화시킴으로써 배제의 정책을 펼쳤다. 이들이 프랑스에 대해 더 많은 반감을 갖고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지지한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sup>20</sup> 대표적인 인물이 알제리의 영웅인 후아리 부메디엔(Houari Boumédiène, 1932~1978) 대통령이 다.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프랑스어를 배제시키려는 탈식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sup>21</sup> 알제리에서의 탈식민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임기대(2009)를 참고하였다.

아니었다.<sup>22</sup>

▶ 친 소련 사회주의 노선: 독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새 정부는 친 소련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1971년 농지와 석유회사 등과 같은 기업들의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모든 국가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사회주의적 방침에 따라 운영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973년 석유폐동을 계기로 비동맹 제 3세계 세력이 국제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알제리는 비동맹 의장국으로서 UN을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실제 알제리는 1973년 비동맹국가 회의를 개최하여, 반서구주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독립정부의 탈식민화 정책 목표는 사회주의 국가와 아랍이슬람국가 건설이었다. 그 결과 프랑스어를 말살하려는 언어정책은 베르베르어 말살 정책과 마찬가지로 중동지역에서 아랍학자들을 들여와 아랍어를 모든 교육기관에서 배우도록 하였다. 하지만, 식민지배 기간 동안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알제리인들은 오히려 프랑스어에 익숙하여 중동의 아랍학자들에 의한 교육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자연스럽게 익힌 프랑스어가 오히려 아랍어보다 더 친숙한 언어로 자리매김하여 알제리인들이 행정기관에서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 3. 여러 종류의 아랍어

독립 후, 알제리의 언어정책은 민족주의와 종교에 입각한 아랍어를 채택함으로써 프랑스어와 대립각을 세웠지만, 현재까지도 언어적 혼동 상황은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중 하나는 알제리 아랍어가 중동의 아랍어와는 다른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랍어와 프랑스어가 혼동되는 양상이 벌어지는데 특히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알제리의 학교 교육은 아랍어로 진행하여 아랍어로 끝난다. 이때의 아랍어는 꾸란에 적혀 있는 ‘고전 아랍어(l'arabe classique)’인데, 주로 사법기관이나 예배, 아랍어 TV채널에서의 정치 담화 영역에서 사용된다. 이 영역에서 벗어나면 알제리인들은 생활 속의 아랍어, 즉 알제리 아랍어 혹은

<sup>22</sup> 부메디엔 대통령 집권 초기 알제리에는 프랑스문화의 영향이 계속 남아 있었다. 아랍어 보급이 확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프랑스 교사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며, 프랑스에 이민을 간 많은 알제리인들이 있어 프랑스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민자 알제리인과 본국에 있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 본국의 가족들이 프랑스에서 합류하기 위해 프랑스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일은 필수적이었다. 게다가 알제리 국민들은 당시 모든 소비재 부분에서 프랑스산을 가장 선호했을 정도로 프랑스식 생활에 익숙해 있었다(공일주 & 전완경, 1998, p. 313).

‘방언 아랍어(l'arabe dialecte)’라 할 수 있는 아랍어를 인구의 90% 정도가 사용한다. 알제리의 국어는 아랍어, 즉 ‘고전 아랍어’이지만, 이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10명 중 8명이 모를 정도이다.<sup>23</sup> ‘문학 아랍어(l'arabe littéraire)’도 있는데, 이는 형식적인 글쓰기에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알제리 아랍어는 교육수준이나 성별, 지역별로(베르베르어권 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베르베르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아랍어,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아랍어, 프랑스어에 익숙한 알제리인들의 아랍어, 혹은 스페인어나 터키 문화에 익숙한 알제리인들의 아랍어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아랍어와 가정에서, 지역별, 길거리, 심지어 성별로 사용되는 아랍어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런 언어 상황을 고려할 때 알제리인들의 언어사용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지역이 중동지역과 어떻게 다른지를 근본적으로 구별짓게 한다.

<<Qui parle quelle langue ou dialecte, à qui est dans quelles circonstances?>> Les usages linguistiques divergent selon l'opposition villes/campagne (ou montagnes) et l'opposition élites lettrées/masses analphabètes. Ces corrélations des fonctions communicatives (à chaque niveau d'organisation : socioprofessionnel, ethnique, régional, etc.), avec les traits phoniques, grammaticaux et lexicaux des langues et les dialectes en contact font de cet Occident musulman une entité aisément distincte des ensembles orientaux.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와 방언을 말하는가?) 마그레브의 언어사용은 도시와 농촌(또는 산지), 학식있는 엘리트 집단과 문맹인 집단 간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용되는 언어나 방언의 음운 자질, 문법자질, 어휘자질과 더불어 의사소통 기능은 동방 이슬람과는 구별되는 서방 이슬람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다[Lacoste & Lacoste, 2004, p. 151].)

이처럼 알제리에서의 언어사용은 상당히 복잡하다. 베르베르어권에서도

<sup>23</sup> <<Combien de langues y a-t-il en Algérie?>>, ce dernier répond généralement qu'il y en a trois : l'arabe, le français et le berbère. Il ajoute souvent : <<mais la langue du pays ou la langue nationale c'est l'arabe classique>>, A la question : <<pouvez vous parler l'arabe classique?>>, huit réponses sur dix sont négative.

<<알제리에는 몇 개의 언어가 있습니까?>>, 후자는 일반적으로 아랍어, 프랑스어, 베르베르어, 3개의 언어가 있다고 답한다. 그는 <<하지만 국가언어는 고전아랍어입니다>>라고 덧붙이곤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고전아랍어를 말할 줄 압니까?>>라고 묻는다면, 10명 중 8명은 부정적으로 답한다(Jocelyne, 2004, p. 500).

지역에 따른 방언이 있고, 아랍어의 경우도 국어로서의 위상을 갖고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 사용 형태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은 흥미롭고 그 위상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아랍어를 사용하고 강력한 아랍어정책을 실행했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프랑스어가 이들의 언어소통과 사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언론, 경제, 정치, 교육 영역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다. 라코스테(Lacoste & Lacoste, 2004, p. 186)가 강조했듯이, 그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알제리를 비롯한 마그레브에서 프랑스어는 식민시대보다 갈수록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 Ⅲ. 프랑스어 사용과 위상

프랑스어 사용은 여러 종류의 아랍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베르베르어와 더불어 상호 보완적이거나 경쟁 관계 속에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프랑스어는 분명 공식어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랍어와 베르베르어에 부재한 의사소통 부분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아랍이슬람화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아랍어와 베르베르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배치와 상황에 따라 프랑스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어가 지성의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스펙이자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체계까지 다른 언어에 비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아랍이슬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 프랑스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와 언론이 프랑스어 사용과 위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그리고 학식이 있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프랑스어 미디어와 언론매체에 익숙해 있는데, 미디어와 언론매체를 접하는 층은 식민지배 세대와 신세대 간에 차이를 보인다. 신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프랑스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프랑스어는 서구사회와 자신들을 이어줄 수 있는 통로이다.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알제리인들조차 미디어와 신문 매체를 통해 프랑스어/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신문의 경우 총 35 종의 일간지가 있으며, 이 중 프랑스어 일간지가 20개 정도로 아랍어 일간지보다 많다.

판매부수는 아랍어 일간지 ‘엘 카바르(El Khabar)’가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상위권 신문은 프랑스어 일간지가 차지하고 있다.<sup>24</sup> 특이한 점은 아랍이슬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아랍어를 정부 대변지로 선택하지 않고, 프랑스어판 ‘엘 무자히드(El Moudjahid)’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슬람정당이 주도하는 정당이 주축이 아니고, 정치의 안정화와 경제를 우선시하다보니 프랑스어판 정부기관지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정치와 경제의 안정화는 외부 투자자들에게도 안정된 국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sup>25</sup> 게다가 대부분의 공개입찰은 프랑스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정부 일간지를 비롯한 프랑스어판 일간지는 주로 대도시와 지식인, 문화예술계 및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TV와 라디오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인 타마지그트어 방송<sup>26</sup> 외에도 프랑스어 전문 채널이 있어 베르베르인들이나 알제리의 젊은이들이 많이 시청한다. 프랑스어 채널은 민영 채널 <Canal Algérie>가 있어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프랑스 채널 또한 상당한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sup>27</sup> 프랑스어 채널이 접시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알제리 전역에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알제리인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프랑스어/문화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된다.

둘째, 이렇게 프랑스어가 알제리에서 일상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독립후 정부의 아랍이슬람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알제리의 초중등교육은 아랍어로 교육한다. 하지만 중등교육까지 아랍어로 한다 할지라도 대학 입학 후에 프랑스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은 당연히 고등교육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특히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전 분야, 의학, 컴퓨터관련 학과에서 학생들은 프랑스어로 학업을 해야 한다.<sup>28</sup> 수업뿐만

<sup>24</sup> 프랑스어 일간지는 *El Watan*, *Liberté*, *Le quotidien*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sup>25</sup> 정부 기관지를 통해 알제리 정부는 대규모 외국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가 정부 기관지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어의 경우 매각 및 유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데 한계가 있다.

<sup>26</sup> 국영 방송으로는 유일하게 ENTV가 있다. ENTV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의 타마지그트어로 방송한다고 하지만 타마지그트어는 2009년부터 제한된 시간대에서만 방영한다. 유일한 국영 채널인 ENTV는 알제리인들의 종교와 전통 양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경우는 시청하지 않는 편이다. 알제리는 저렴한 가격에 가정마다 1,000개 이상의 전 세계 채널을 볼 수 있는 접시안테나(parabol)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채널은 거의 보지 않는 편이다.

<sup>27</sup> 무료로 볼 수 있는 채널은 TF1, France 2, France 3, Arte, M6 등으로 알제리인들이 주 시청자이고, Canal Algérie의 경우 프랑스 거주 알제리인들이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

<sup>28</sup> 알제리에서는 2000년 7월 5일까지 대학의 전 강좌를 아랍어로 진행한다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니라 알제리의 학제는 이슬람학교를 제외하곤 프랑스 학제(LMD)<sup>29</sup>와 같은 방식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여 알제리정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의무교육이었던 프랑스어를 200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아랍어는 물론, 세계화시대의 공용어인 영어까지도 알제리에서 여전히 통용되지 못하는 이유이다.<sup>30</sup>

셋째, 알제리에서 프랑스어 사용이 식민교육을 받은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까지 포괄적으로 확장된 데에는 정보화시대에 사용되는 핸드폰과 컴퓨터,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의 역할이 크다. 대부분의 알제리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유선 전화기 보급률을 압도하고 있다. 핸드폰의 문자 발송, 컴퓨터 사용, SNS에서의 의사소통은 주로 프랑스어로 한다. 아랍어를 사용하여 소통한다 할지라도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화 매체에서 프랑스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 그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Facebook 등을 통한 소통이 활발한 편이다. 다른 중동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그레브국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Facebook 사용자들은 아랍권 이용자와의 소통에서는 아랍어로 사용하지만, 베르베르어권과 프랑스어 사용자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sup>31</sup> 특히 소수자인 베르베르어권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찾기 운동을 SNS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권력어인 아랍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의 베르베르지역 출신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 찾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SNS에 의한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독재자를 척결하는데 일조했지만, 알제리(모로코, 프랑스 등에 있는 베르베르 출신들과 연대하고 있다)에서는 오히려 토착민인 베르베르의 정체성 찾기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언어는 베르베르어와 프랑스어, 혹은 두 언어를 병용하고 있다.<sup>32</sup>

<sup>29</sup> Licence-Master-Doctorat과정으로 각각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일컬으며, 유럽연합 전체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체계가 유럽연합 체제로 바뀌면서 알제리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바꾼 점도 눈 여겨 볼 부분이다.

<sup>30</sup> 알제리 대학에서 영어교육은 석유와 석유화학 관련 학과에서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2011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알제리의 학부형 중 5% 미만 정도가 자신들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프랑스어보다 영어를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sup>31</sup> 이 부분에서는 향후 더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곳 사용자들은 주로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로 이민한 베르베르 출신의 알제리인들이 가장 많다. 이들은 베르베르어와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며 소통한다. 베르베르어는 인접 모로코와의 연대를 통한 정체성 찾기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민간 알제리인들은 본국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아랍어 사용은 주로 중동의 민주화에 힘입어 현재의 알제리 정부 비판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는 편이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서도 프랑스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sup>32</sup> 예를 들어, Mazigh Aurès, Congrès Maghrébin au Québec, Médias Maghreb, France Maghreb

넷째, 프랑스는 알제리인들에게 애증의 대상국이다. 132년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증오감이 있지만, 동시에 자국의 열악한 상황은 프랑스를 늘 꿈꾸게 한다. 게다가 4백만 명 이상의 알제리인들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프랑스와 미묘한 관계의 피에누아(Pied-noir, 알제리 출신 프랑스인)와 아르키(Harki, 알제리 태생이지만 프랑스인이 된 알제리인), 뵈르(Beur, 마그레브 출신 이민자 2, 3세대)까지 포함한다면 알제리와 관련된 사람은 그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알제리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다섯째, 현대 알제리사회에서 프랑스어 사용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종교적 전통에 따라 어려서부터 가정에 주로 머무는 알제리여성들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통해 프랑스 방송에 익숙해진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대학생 비율은 여성과 남성이 6/4를 차지한다)과 공공기관에서의 취업률 또한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보니 프랑스어 사용이 용이한 편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알제리에서 프랑스어 위상은 배제의 대상이지만, 역사적 과정이나 경제 환경, 제도, 생활 속에서 일상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어의 위상은 알제리 정부의 아랍어 정책과는 상관없이 알제리인들의 일상이며, 외국어가 아닌 국민 언어로서의 위상을 알제리 사회에서 갖게 하며, 이런 언어적 병용 현상은 식민지배의 영향이 가장 크다.

L'évènement fondateur de la mixité culturelle et du métissage linguistique serait la colonisation.

(문화적 혼합과 언어적 섞임의 근본적인 사건은 식민지화일 것이다[Jocelyne, 2004, p. 261].)

이처럼 프랑스어가 사용되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지만, 프랑스어는 갈수록 그 사용에 있어 아랍어나 베르베르어와 확연히 구분해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sup>33</sup>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알제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랍어를 혼합해 사용하며, 베르베르어권 사용자의 경우도 3개의 언어를 혼용한다. 베르베르어권 사용자는 각 지역별로 더 복잡하게 사용함은 부언할

---

등이 베르베르 관련 SNS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알제리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SNS는 Envoyés Spéciaux Algériens, Sos Djazair, Libres Penseurs Algériens 등이 있다. APS(Algérie Presse Service)는 알제리 정부를 대변한다. 향후 알제리 및 마그레브 관련 SNS에서의 흐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 비판은 물론이지만, 이곳에서 사용하는 언어 및 언어 사용을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 등이 해당될 것이다.

<sup>33</sup> 현지 알제리인들을 만나다 보면 아랍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거나, 아랍어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프랑스적 가치에 동화해있거나 베르베르의 카빌로 반아랍이슬람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필요가 없다. 이렇듯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언어사용은 완벽하게 구사하는 세대에서 갈수록 문법과 어법에 구애받지 않고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층의 증가를 가져왔다. ‘Défaut de langue’(혹은 ‘français cassé’)라 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3개 언어의 병용, SNS 등과 같은 매체에서의 사용 증가, 그리고 아랍어와 베르베르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이 두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며 프랑스어를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불완전한 프랑스어 사용이 일상적이게 된다.

다른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프랑스어와 아랍어의 특징적 차이에 있다. 프랑스어와는 달리 아랍어와 베르베르어는 합셈어족에 속한다. 두 언어 모두 모음보다 자음으로 구성되어 마찰음이 많이 나타나고 음색은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고전 아랍어가 28개의 음소를 사용하는데 25개의 자음과 3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음 위주의 발음을 하기 때문이다. 베르베르어 또한 자음이 풍부한 언어이며, 모음은 a, i, u뿐이다. 이 두 언어 모두 억양이 대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랍어의 경우 관사가 있지만 베르베르어 경우에는 관사도 관계대명사도 없으며 한국어처럼 동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동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특성으로 신세대의 프랑스어 사용은 주어 동사의 도치, 관계대명사 생략, 동사 변화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허다하다.

어휘 차용의 경우도 갈수록 혼용 양상이 두드러진다. 언어적으로 불충분한 요소들을 채우기 위해 베르베르어는 아랍어와 프랑스어에서 많은 어휘들을 차용하기도 하지만, 알제리 아랍어 또한 이 두 언어에서 많은 어휘들을 차용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몇몇 단어를 생각해볼 수 있다.

·프랑스어에서 차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알제리 아랍어를 보면 ‘tilivision’, ‘tabla’, ‘trétoir’, ‘loto’ 등이 있고, 역으로 프랑스어의 ‘tableau’와 ‘brosse’는 알제리 아랍어의 ‘sabora’와 ‘mimHa’가 되었다.

·터키어와 스페인어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터키어의 경우, ‘qahwaji’는 ‘카페 종업원’을 부를 때 사용되고, 스페인어의 ‘colla’는 ‘줄을 서다’의 ‘줄’을 의미하고 있다.

·베르베르어의 경우,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음식인 ‘couscous’와 ‘merguez’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sup>34</sup>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례조차도 지역별, 세대별, 교육수준별 등의

<sup>34</sup> 베르베르어의 영향은 알제리는 물론 라틴어를 비롯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아랍어의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베르베르어가 인접 언어에 영향을 준 자세한 내용은 Hadaddou(2002)를 참조할 수 있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알제리에서 다중 언어사용의 체계적인 연구가 힘든 이유이다. 알제리의 아랍어는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는 아랍어와는 다르며, 각 지역별 문화적 특성상 언어 혼용은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언어 혼용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언어가 프랑스어이지만, 최근 신세대들은 프랑스어조차 다른 언어와 더불어 혼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 식민지배를 받은 기성세대, 카빌리 지역민들은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사한다. 어쨌든 신세대의 프랑스어 사용은 주 언어 이외에도 터키어나 스페인어도 혼용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언어들만은 매우 제한적이다.

#### IV. OIF와의 관계 및 쟁점

복잡한 다중언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 프랑스어는 공용어 수준의 위상을 갖는다. 그것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간에 알제리인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프랑스어, 아랍어, 베르베르어를 사용하며,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규범적 차원의 언어 사용을 넘어서는 것이다.

*L'imaginaire linguistique en actes dans la sensibilité et l'expression du locuteur algérien, échappe de façon explicite aux codes conventionnels de la langue-norme, qu'elle soit arabe ou française.*

(알제리 화자의 감수성과 표현에 따른 행위에서 언어적 상상계는 아랍어나 프랑스어든 간에 언어-규범의 규약적 코드에서 벗어난다[Risler, 2004, p. 49].)

규범적 차원을 넘어 알제리에서 언어 사용과 그 위상은 매우 정치적인 특징을 보인다. 프랑스어와 관련된 OIF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알제리는 프랑스어가 식민주의 잔재라는 이유로 OIF 가입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OIF에서 제공하는 학생 장학금, 프랑스어 교사 양성 지원, 여러 형태의 문화협력 관련 지원을 아랍이슬람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원칙하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배 당시도 그랬지만, 지난 우파 정권 당시 대통령있던 자크 시락과 니콜라 사르코지는 '북아프리카에서의 긍정적 역할 법안'<sup>35</sup> 통과와 2011년 '부르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알제리인들의 분노를 샀고,

<sup>35</sup> 프랑스는 2005년 2월 23일 법 가운데, 과거 북아프리카 식민국가에서 토지를 개간하고 방역을 하며, 근대화교육을 시켰다는 북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조문을 통과시켜, 알제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 당시 알제리 정부는 프랑스와의 모든 우호조약을 파기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이 당선된 후 올 12월 알제리 방문이 예정되어 양국 간 관계 복원을 희망하고 있다.

기성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프랑스와의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알제리 입장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프랑스와의 관계 복원도 프랑스어 사용이나 그 위상도 고려치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알제리의 특권층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프랑스어학교에 가장 많이 진학시킨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이다.

OIF에 대한 알제리 정부 입장이 확고하긴 하지만, 2002년 레바논에서 개최된 제 9차 OIF 정상회담부터 알제리 정부는 프랑스어에 대한 OIF와의 관계를 달리한다. 현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Abdelaziz Bouteflika)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초청되면서 다분히 정치적 발언을 통해 참가 목적을 밝혔는데, 알제리 내에서 다언어/문화(베르베르와 프랑스문화)에 대한 개방 혹은 수용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이다.<sup>36</sup>

Aujourd'hui, nous devons savoir nous départir de la nostalgie chatouilleuse, qui s'exprime en repli sur soi, et nous ouvrir sans complexe à la culture de l'autre, afin de mieux affronter le défi de la modernité et du développement, par nous-même et dans nous-mêmes ... L'usage de la langue française est un lien qui assure notre unité.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 쪽에 기울어 표현되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하며, 타문화에 대해서도 거리낌없이 개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혹은 우리 자신 안에서 현대성이나 개발의 도전에 더 과감히 맞서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어의 사용은 우리의 동질성을 확신시키는 끈과도 같다 [Forum Algérie, 2010, October 26].)

이때 이후로 정부는 알제리가 아랍이슬람의 일원이자 지중해국가임을 천명하면서 아랍어, 프랑스어, 베르베르어의 위상을 달리한다.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실시된 대국민화합정책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 다언어사용 국가임을 천명한 것이다.<sup>3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sup>36</sup> 앞서도 언급했지만, 2002년은 베르베르어인 타마지그트어를 공식어로 인정한 해이다.

<sup>37</sup> 2005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대국민화합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90% 이상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대국민화합정책은 근본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척결하여 알제리의 대외 이미지를 올려놓는 효과를 가져왔고, 문화적으로는 베르베르 문화의 독자성 유지, 베르베르 지역 기반 정당의 인정, 프랑스어의 조기교육 실시 및 프랑스와의 관계 복원 등이 담겨 있다. 개정된 2006년 알제리 헌법 제 2-3조에서도 기존의 틀을 약간 수정하여 좀 더 유연한 시각을 취한다. 즉 알제리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동시에 마그레브, 아프리카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역사 속에서 알제리가 지중해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기존에 정의된 아랍이슬람 국가로서의 알제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2007년 예산법

프랑스어를 국가어의 위상으로 격상시키지 않는데, 이는 종교인들과 그에 호응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아랍이슬람에 의한 이슬람국가 건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이미 1990년대 암울했던 시대를 경험한 정부 입장에서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랍어 정책으로는 시대적 흐름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알제리에서는 이미 하나의 주 흐름이다. 그런데도 알제리에서 언어정책은 국민들의 언어 사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비현실적인 요소들,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식민지배 당시 프랑스에 종속된 언어정책이 바뀌어 이제 중동국가들의 언어정책으로 종속되는 듯이 보이지만, 이는 알제리만이 갖는 일상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알제리의 OIF 가입 문제도 바로 이런 특수성의 연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제외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늘고 있더라도 이곳의 여러 복잡한 상황은 OIF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프랑스어와 일상에서의 사용, 영어를 비롯한 또 다른 언어에 대한 학습 필요성 등은 알제리에서의 아랍어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이고 강압적인 언어정책이 아닌, 알제리인들의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의 현황을 직시하고, 프랑스와의 관계까지를 능동적으로 고려할 때 OIF 및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 V. 맺는 말

알제리에서의 다중 언어사용과 프랑스어의 위상을 전망해보는 일은 간단치가 않다. 언어사용의 경우만 보더라도 언어학적 분석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체계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알제리에서는 3개의 언어, 즉 베르베르어와 아랍어, 프랑스어가 병용되고, 이들 언어사용이 다분히 정치사회적 문제와 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아랍어는 중동의 아랍어와 달리 방언 아랍어와 고전 아랍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베르베르어 또한 지역민들이 어떤 정체성을 보이며, 어떤 문화권(아랍이슬람 혹은 프랑스)과 접속되는가에 따라 그 사용 방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알제리라는 국가가 어떤 한 시대나 문명, 어떤 하나의 종교나 언어로 이루어지거나 대표될 수 있는 국가가 아님을 보여준다. 다양한 문명과 종교, 인종, 언어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복합적인 모습을

---

통과에 관한 연설에서 알제리 대통령 부테플리카는 알제리가 동양과 서양에 속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고유 가치와 문화가 우선시되는 사회건설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EI Watan*, 2006, December 27).

보이는 것이 언어 사용의 경우이다.

다중언어사회 알제리에서 아랍어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알제리인들의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한다. 프랑스어는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알제리인들의 기저에 있는 지중해적 정체성과 실용성이라는 맥락과 공유된다. 베르베르어는 토착어로 알제리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때론 반아랍적 문화와 대척점에 있다. 여기에서 프랑스어는 이들 언어와 더불어 상호보완적 형태를 보이면서 정치 영역의 개입으로 대립적인 성격을 보인다. 특히 독립을 전후해서 구분이 확연한데, 식민지배 당시는 능숙한 알제리의 이중언어 화자가 주류였다. 물론 베르베르어 화자들도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체계적인 사용자가 아니었다. 반면 독립 전쟁을 치르면서, 그리고 독립 이후 민족주의와 탈식민화정책 일환으로 아랍이슬람화 정책이 추진된다. 아랍이슬람화 정책은 일상에서 프랑스어 배제 정책이 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날과 같이 프랑스어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상의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부재에 따른 것이다. OIF와의 문제도 프랑스어 화자들을 고려한다면 유연한 결정을 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결정은 정치적이었기에, 지금까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유일하게 OIF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남게 된다.

프랑스로부터 독립 50주년을 맞이한 2012년에는 프랑스와 알제리의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프랑수아 올랑드는 알제리와의 관계 복원을 위해 12월 19일 이곳을 국민방문하며, 사전 조율을 위해 이미 외무부장관과 프랑스어권부 장관 등이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알제리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프랑스어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프랑스어와 아랍어 대립이 최근 알제리 지식인층을 허물었다>><sup>38</sup>는 기사는 국가의 정체성 문제를 논쟁의 중심에 놓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배제한 언어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알제리에서 프랑스어의 향후 위상은 언어 사용에 관한 학문적 분석과 국가의 체계적인 정책이 결합될 때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출발점은 알제리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혼종적 특성을 보이며, 프랑스어가 일상의 언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sup>38</sup> 알제리 독립 50주년을 맞아 언어사용에 관한 논쟁이 최근 알제리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언어학자 탈레브 이브라히미(K. Taleb Ibrahim)는 알제리 언어사용자의 실체를 무시한 아랍어 정책을 비판하며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언어정책을 수립하여 프랑스어의 위상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El Watan*, 2012, July 11).

## 참고문헌

- 공일주, 전완경. (1998). *북아프리카사*. 서울: 대한교과서.
- 미우라 노부타카. (2005).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연숙 역). 서울: 돌베개.
- 박상진. (2005). *중해학: 세계화 시대의 지중해 문명*. 서울: 살림.
- 시오노 나나미. (2009).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김석희 역). 서울: 한길사.
- 임기대. (2008). 다언어국가로서의 알제리의 언어 사용 정책에 관한 연구: 베르베르어의 경우. *한국프랑스학회*, 62, 23-48.
- 임기대. (2009). 알제리 식민지배 초기의 프랑스의 언어 문화정책. *프랑스학 연구*, 48, 447-477.
- 임기대. (2010). 독립 후(1965-1978) 알제리의 언어 교육정책: 탈식민화 과정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 연구*, 52, 359-384.
- 정수일. (2004). *이슬람 문명*.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줄리아 크리스테바. (1997). *언어, 그 미지의 것*. (김인환 역). 서울: 민음사.
- Jocelyne, D. (2004). *Trames de langues: Usages et métissages linguistiques dans l'histoire du Maghreb*. Paris: Maisonneuve et Larose.
- Bourdieu, P. (1961). *Sociologie de l'Algérie*. Paris: PUF.
- Calvet, L.-J. (1974). *Linguistique et colonialisme: Petit traité de glottophagie*. Paris: Editions Payot.
- Camps, G. (2007). *Les berbères: mémoire et identité*. France: Actes sud.
- Chitour, C.-E. (2004). *Algérie: le passé revisité*. Alger: Casbah Editions.
- Faidherbe, L. (1984). L'alliance française pour la propagation de la langue française dans les colonies et les pays étrangers. *Revue scientifique*, 26, 104-109.
- Haddadou, M. (2002).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berbère*. Alger: INAS.
- Lacoste, C., & Lacoste, Y. (2004). *Maghreb, Peuples et civilisations*. Paris: Editions la Découverte.
- Risler, C. (2004). *La politique culturelle de la France en Algérie: Les objectifs et les limites (1830-1962)*. Paris: L'Harmattan.
- Sebba, R. (2002). *L'Algérie et la langue française: L'altérité partagé*. Oran: Editions Dar el Gharb.
- Stora, B. (2004). *Algérie: histoire contemporaine 1830-1988*. Alger: Casbah Editions.

---

임기대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프랑스어문학과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전 화: 042) 629-7343  
팩 스: 042) 629-8405  
이메일: ljn0910@hnu.ac.kr

Received on July 31, 2012

Reviewed on October 26,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28, 2012

Accepted on December 5, 2012